

소득분위에 따른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영향요인 연구

김대건*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고령층의 소득에 따른 내부적 이질성에 기반하여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소득분위에 따라 확인한 연구이다. 중고령층 인구집단을 소득에 따라 4분위로 나누고 선행연구에 따라 제시된 사회참여 영향요인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는 고령화연구패널 5차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에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2,791사례가 투입되었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사회참여 영향요인은 전체 중고령층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소득분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변수의 영향력은 순차적으로 상실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보인 집단에서는 교육수준과 건강상태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설명력을 상실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분석결과에 기반하여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중고령층 개인의 소득수준 및 욕구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적 탄력성을 가져야 함을 함의로 제시하였다.

[주제어] 중고령층, 사회참여, 소득분위, 고령화패널, 토빗모형

* 김대건(Email: iyap21@naver.com)
 학위취득대학: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 박사
 현직: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외래강사

논문접수일: 2018년 6월 24일, 논문수정일: 2018년 7월 25일, 게재 확정일: 2018년 7월 29일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Civic Engagement for Middle and Old-aged by Income Quartile

Kim, Dae Gu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 which affects the civic engagement based on the internal heterogeneity according to the middle and old-aged people's income. This study was to divide the population group of middle and old-aged people according to the income in quartile and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n the correlates of civic engagement suggested in preceding study. As for the analysis data, this study was to us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The result of this research is may be summed up as follows.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correlates of most of civic engagement had significant effect on the group of total middle and old-aged people. However, as a result of analyzing it by dividing it into the income distribution group,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the influence of variables showed a tendency to be lost in consecutive order as income levels rose. In particular, at the group which showed the highest income level, the whole variable except the education level and health status lost its explanation power. Based on the analysis result, this study was to implicatively suggest that various policies which induced the civic engagement for the middle and old-aged people should have policy resilience which could be applied individually according to the individual income level and needs for the middle and old-aged people.

[Keywords] *middle and old-aged, civic engagement, Income quintile, KLoSA, tobit*

I. 서론

본 연구는 토빗모형을 활용하여 중고령층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구조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중고령층의 소득에 따른 내부 이질성에 주목하여 중고령층을 소득분위에 따라 집단 구분하고 각각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중고령층은 성인기 중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 단계의 생애단계를 의미한다(정일영, 2015). 중고령층의 연령범위에 대해 국내외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50세에서 64세까지의 범위에 해당하는 연령집단으로 정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중고령층의 범위가 그들에게 주어진 노동시장 여건과 퇴직연금 수급연령 등에 관계되어 정의되어 왔기 때문이다(권혁남, 2012; 김대건, 2018; 박능후·최민정, 2014; 이성균, 2009; 정순술·이우리, 2014; 지은정, 2012). 즉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따라 이전 세대에 비해 빠른 퇴직을 선택함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 수급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여 취약한 노동시장 지위와 불완전한 연금지위가 동시에 적용되는 시기라 할 수 있는 것이다(신현구, 2008).

우리 사회에서 중고령층의 중요성이 주목되는 이유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경제성장의 둔화 경향에 관련하여 이해될 수 있다. 중고령층이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에서 퇴직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진 상대적으로 높은 인적자본 수준은 고령화와 경제성장의 둔화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한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변루나 등, 2011; 황수경, 2012). 이에 따라 중고령층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직업경력이나 전문지식, 숙련 등을 활용하여 사회에 추가적인 생산성을 제공하도록 유도되고 있다. 또한 신노년, 선배시민(senior citizen) 등과 같은 용어 등이 사회적으로 강조되면서 사회적 생산성을 유지하는 중고령층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부여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와 함께 중고령층 또한 이전세대에 비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합하면 중고령층의 사회적 역할 수행은 사회적 요구임과 동시에 중고령층 스스로의 욕구이기도 한 것이다.

중고령층이 사회적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다. 그러나 특히 한국의 노동시장은 중고령층 인력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으며 중고령층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거나 기존에 갖고 있던 일자리를 유지하려 하더라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퇴직이 강요되거나 열악한 수준의 근무환경이 제공되는 저임금일자리로 편입되는 경우가 빈번히 관찰된다(김주영·우석진, 2010; 홍현미라, 2009). 이에 따라 재취업을 통한 중고령층의 생산 참여는 중고령층 개인이나 사회적 차원에서 효율적이지 못한 경향이 있다.

중고령층의 사회적 생산성 실현을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거론되는 것이 사회참여(Civic Engagement)이다. 사회참여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인관계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McBride, 2003) 구체적으로는 개인 간 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참여(social engagement)와 정치적 변화를 위해 활동하는 정치 참여(political engagement)로 구성된다. 특히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는 한 사회의 생산성 총량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는 사회적 의미뿐만 아니라 중고령층의 건강이나 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이소정 등, 2007) 퇴직 전후의 달라진 생활환경 적응과 자아존중감 유지에도 도움을 주는

등의 중고령층 개인의 차원에서도 매우 유용하다(김종인, 2012; Rowe & Kahn, 1997).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이른 시점부터 중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온 서구에서는 중고령층의 사회참여가 암묵적으로 사회규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박선권, 2013; Kaskie et al., 2008).

중고령층의 사회참여가 갖는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중고령층이 사회참여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대한 실증연구도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중고령층의 성격에 집중한 다양한 연구(곽인숙·홍성희, 2013; 방하남 등, 2010; 손유미·이성, 2011; 이성균, 2011; 이소정, 2009)에 따르면 중고령층은 내부적인 이질성이 뚜렷하게 관찰되는 인구집단이다. 박영란 등(2011)은 중고령층의 집단 내 이질성이 노후 소득불평등, 이중적 역할 기대에 의한 자아정체감 저하, 정신건강 악화 등과 같은 부정적 상황을 발생시키는데 있어 주요 요인이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결국 중고령층과 관련한 실증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집단 내 이질성의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중고령층을 동질한 성격을 지닌 단일집단으로 가정함으로써 중고령층의 내부적 다양성에 민감하지 못한 경향이 있다.

이같은 배경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환경이 집단의 내부적 이질성에 따라 이해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또한 이를 확인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가진 유용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고령층의 경우 노년기에 진입하기까지 순차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함에 따라 개인별로 유급노동 종사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동시에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자녀의 유무에 따라 자녀교육 부담 또한 다를 수 있어 가구의 소득 및 소비구조에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서지원, 201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 따라 중고령층의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며 중고령층 집단의 소득에 따른 내부 이질성을 고려하기 위해 소득분위에 따라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중고령층의 생활 전반에서 종합적인 영향을 미치는 소득수준의 차별적 영향을 고려한 본 연구는 중고령층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의 기획 및 수행에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중고령층

1) 정의

중고령층은 개인의 생애단계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기 이전의 중년기로 연령기준에서 본격적인 고령세대 직전의 인구집단을 의미한다(정일영, 2015). 보통 생애 중 사회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며 가장 높은 수준의 노동생산성을 보이는 중년기의 특징과는 다르게 중고령층기 개인은 고령사회의 특성에 따라 퇴직을 선택 혹은 강요당하면서도 여전히 충분한 노동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년기와 초기 노년기 특성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서미경, 2010).

서구의 발달심리학이나 노년학 등에서는 전통적으로 은퇴 및 노년생활의 준비에 집중하는 시기로 40세부터 60세까지의 기간을 중년기로 정의한다. 반면 Laslett(1991)은 중년기의 영역구분에 다른 관점이 도입되어야 함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사회의 변화와 수명의 연장에 따라 근대사회에서의 은퇴시점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데 기반한 것이다. 그는 50세 이후를 제3인생기로 칭하면서 인생의 절정기(Apogee)이며 개인적 성취(personal fulfillment)를 이루는 시기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같은 관점에서 중고령층은 고령사회가 달성된 현대사회에서 더욱 현실 적합한 정의라 할 수 있다(서미경, 2010).

사회적 차원에서 중고령층은 초기 산업사회의 생애주기에서 벗어난 새로운 정의라 할 수 있다. 노동생애의 종료와 노후소득보장체계로의 진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던 전통적 은퇴모형이 후기 산업사회에서는 적용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고령층의 출현은 노동시장에서의 이른 배출에도 불구하고 연금수급연령에는 도달하지 못한 마찰적 이중배제상황에서 정의된 새로운 연령 집단이라 할 수 있다.

2) 연령범위

지금까지 중고령층의 특성에 주목한 다양한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유동적인 연령범위를 적용하고 있다. 이같은 경향은 생활영역과 학술영역에서 중고령층의 연령범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은데 기인한다(권혁남, 2012; 김종혜·강운선, 2013; 박능후·최민정, 2014; 정순돌·이루리, 2014; 한태영, 2014).

중고령층의 연령범위를 고민함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해당 세대의 특성은 두 가지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잔존한 노동력의 시장가치, 즉 노동시장 내에서 중고령층 인력의 위치이며 두 번째는 연금지위이다. 이 두 가지의 특성의 복합적인 영향이 중고령층을 노동시장과 사회보험체제에서 동시에 배제되는 마찰적 지위로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이같은 관점을 적용한다면 중고령층의 연령하한은 노동시장 내 지위의 변화시점과 연관되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박미현, 2012; 신현구, 2008; 윤형호 등, 2007)에서는 50세를 전후로 노동시장 내 지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 시기를 기준으로 조기퇴직 및 실망실업의 비중이 높아지며 동시에 재취업의 확률이 저하된다는 것이다(홍현미라, 2009). 실제로 통계청의 2014년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퇴직이 시작되는 평균연령은 임금근로자의 경우 49세, 비임금근로자는 51세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한편 중고령층의 상한연령은 65세 미만까지가 포함될 필요가 있다.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퇴직연금 급여의 수급개시시점으로 가장 빈번하게 채택하고 있는 연령기준이 65세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종합하면 중고령층의 연령범위는 50세에서 64세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는 중고령층을 다룬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활용되어 온 연령범위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더욱 타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나현미·심지현, 2016; 손정현·이영민, 2011; 이성균, 2008; 정일영, 2015; 조연숙·윤상미, 2015).

3) 중고령층의 내부 이질성

중고령층은 집단 내부에 다양한 조건의 이질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생애 중 누적된 경험과 자원, 인구학적 조건 등의 차이에 기반한다(곽인숙·홍성희, 2013; 박미희·변금선, 2013; 방하남 등, 2010; 이성균, 2011; 이소정, 2009; 정홍원, 2015).

중고령층의 집단 내 이질성은 노년기까지 이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삼성경제연구소(2011)에 따르면 중고령층의 집단 내 이질성은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보장되어 노년기에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비생활을 유지하는 집단과 충분치 않은 노후소득으로 소비위축에 직면하는 집단으로 분화된다. 또한 이중적 역할 기대에 따른 자아정체감 또는 정신건강의 면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박영란 등, 2011). 이에 따라 중고령층에 대한 정책적 고려는 집단 내의 이질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진행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고령층집단에 이질성을 부여하는 모든 변수를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이성균(2010)은 연령과 노동가능지수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연령 증가에 따라 노동가능지수가 꾸준히 감소하는데 특히 50세를 전후하여 변동폭이 심해진다고 보고하면서 내적 이질성이 노동과 이에 따른 소득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유급노동 종사여부는 가구의 소득 및 소비구조에 편차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수 있기 때문이다(서지원, 2012). 박경숙(2003)은 중고령층이 노동이력과 이에 따른 재취업 가능성의 면에서 내부 이질성이 매우 크다고 하였는데 노동여부나 노동조건이 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때 중고령층의 소득에 의한 이질성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의에 기반한다면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집단 내부적 이질성을 발생시키는 변수로서 소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려 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참여

중고령층의 개념범위와 마찬가지로 사회참여의 개념 또한 연구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어 오고 있는데 이것은 사회참여가 시민참여, 정치참여 등과 같은 인접개념과 명백한 개념영역상의 구분없이 쓰인 데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Adler & Goggin, 2005; McBride, 2003; Seligson, 1995).

사회참여의 개념에 대한 체계적인 고찰을 시도한 McBride(2003)는 사회참여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인관계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용어사용의 혼란에도 불구하고 공공선을 위한 시민의 사회경제적 개입활동이라는 핵심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Ehrlich(2000)는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식, 기술, 가치, 동기 등의 활용활동 및 그 과정이 사회참여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정의를 정리하면 사회참여는 개인 간 관계의 유지와 개인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총체적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중고령층의 사회참여가 주목되는 이유는 인구구조와 노동시장 여건 변화에 결부

하여 이해될 수 있다. 먼저 중고령 인력에 대해 상대적으로 호의적이지 않은 노동시장 환경은 이전세대에 비해 빠른 시점에서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이탈을 유도하고 있다. 반면 중고령층의 노동력으로서의 가치는 퇴직 이후에도 유지되며 특히 이들이 가진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수준과 직업경력, 전문지식, 숙련 등은 사회적 생산성의 극대화에 있어 여전히 유용성을 가진다. 고령화와 경제성장의 둔화에 따라 중고령 인력의 유용성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는 중고령층이 사회적 역할을 유지하여 사회에 추가적인 생산성을 제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고령층 스스로도 이전세대에 비해 높은 사회적 욕구를 보임에 따라 중고령층에 있어 사회참여의 의미는 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

사회참여의 정의에서 나타나는 혼란에도 불구하고 실증적 차원에서 사회참여의 구체적인 활동을 정의함에 있어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²⁾. 주요하게 논의되는 영역은 유급노동과 개인적 참여활동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대건(2018)은 유급노동이 명백한 사회적 기여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회참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로 노년학의 ‘생산적 활동’과의 개념중첩 문제와 함께 특히 한국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비자발적 이탈이 사회참여의 자발성과 상충됨을 이유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적 참여활동의 경우 사회적 지향성이 매우 적거나 없을 수 있으며 반면 사회참여의 영역은 극단적으로 넓어질 수 있다는 한계를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연구에서 유급노동과 개인적 참여활동을 사회참여 영역에서 제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주경희, 2010; Brunton-Smith, 2011; Verba & Nie, 1987).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요인과 중고령층 집단 내 이질성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2015)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를 활용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조사는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고령인구에 대한 기초자료를 축적 하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사회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06년부터 격년단위로 조사되고 있다(한국노동연구원, 2008).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중고령층의 연령범위에 대해 앞에서 논의한 바에 따라 5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이에 따라 분석에 투입된 사례는 2,791사례로 확인되었다.

2) 일반적으로 사회참여에 포함되는 활동은 문헌별로 차이가 크지 않다. 주요하게 포함되는 활동으로는 다양한 정치적 지향의 참여활동, 종교 및 사교모임 활동, 기타 모임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고령화연구패널에서는 종교모임, 친목모임,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단체,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 등 6개 영역이 제시되고 있다.

2. 변수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중고령층의 사회참여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참여는 사회적 지향을 가진 다양한 활동의 참여 여부 또는 그 수준을 중심으로 조작적 정의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고령화연구패널에서는 사회참여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종교모임, 친목모임, 동창회·향우회·종친회, 여가·문화·스포츠 관련 단체, 정당·시민단체·이익단체, 기타 등 6개 영역의 활동 참여를 확인하고 있다. 선행연구(박순미, 2011; 허준수, 2014)에서는 각 활동의 참여 여부를 합산하여 활용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도 사회참여 수준을 상기한 6개 활동의 참여 여부에 따라 0점과 1점으로 부여된 점수를 합산하여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사회참여의 측정과 관련하여 몇몇 연구(정일영, 2013; 주경희, 2011)에서는 정치참여나 문화활동과 관련된 참여영역이 상대적으로 응답빈도가 낮아 통계적인 안정성을 해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내용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참여에 대한 영향요인들을 포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성별(김진옥, 2006; 박미희·변금선, 2013; 이명, 2014), 연령(김진옥, 2006; 이명, 2014; Oliver, 1999), 교육 수준(김종인, 2013; 김진옥, 2006; 박미희·변금선, 2013; 이명, 2014; AARP, 2012; McBride et al., 2004; Oliver, 1999), 배우자 유무(김진옥, 2006; 박미희·변금선, 2013; 이명, 2014; Oliver, 1999), 건강 상태(김종인, 2012; 이명, 2014), 노동 여부(박미희·변금선, 2013), 가구주 여부(Oliver, 1999), 거주지역 규모(김종인, 2013; 김진옥, 2006; 박미희·변금선, 2013; Oliver, 1999), 가구소득(김종인, 2013; 이명, 2014; AARP, 2012; Oliver, 1999; McBride et al., 2004), 삶의 만족(Graney, 1975; 허준수, 2014에서 재인용), 주관적 계층의식(이현기, 2013) 등이 독립변수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교육수준은 자료에서 제시된 최종학력과 수료여부 변수 조합을 통해 교육년수를 산출하여 활용하였다.

건강상태는 자신의 건강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하며 점수가 낮을수록 건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5점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해당 변수를 역점수 처리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가구소득은 경제적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서 나타나는 소득의 좌편포 문제(곽지숙·허명희, 2003)에 대응하기 위해 자연로그를 적용하였다

삶의 만족은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수준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높을수록 만족수준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원문항에서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까지의 범위에서 각 10점 단위로 응답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석 편의를 위해 최소 0점에서 최대 10점까지의 범위를 보이는 10점 척도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은 낮은 점수일수록 자신의 계층이 높다고 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6점척도

이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상의 편의를 위해 해당 변수를 역점수 처리하여 활용하였다.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중고령층 인구집단의 소득분위별 이질성을 고려하여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확인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집단이 특정한 내부 이질성을 갖고 있을 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체 인구집단의 평균을 활용하는 전통적인 OLS 모형을 활용할 경우 회귀계수에 편이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오류를 방지하고자 전체 집단을 소득에 따라 4개 분위로 구분하여 각 집단을 동일한 모형으로 분석하였다³⁾.

본 연구에서 종속변수로 활용되는 사회참여 변수는 최소 0점에서 최대 5점까지의 분포를 보였으며 특히 0점에 해당하는 사례가 상당수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종속변수가 제한된 영역에서만 관찰되는 중도절단자료를 분석할 때 OLS를 적용하면 설명변수의 한계효과 추정에 편이가 발생한다(강철희, 2015; 김희삼, 2009; 이현기, 2012). 이 경우 중도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을 의미하는 토빗모형(tobit model)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민인식·최필선, 2012).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토빗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⁴⁾.

IV. 분석결과

1. 모형의 적합성 검증

아래 [표 1]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추정된 모형은 전체 인구집단과 4개의 소득분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적용되었다.

각 모형의 로그우도와 이에 따른 로그비 검증결과 모든 모형이 99.9%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추정된 모형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 3) 소득분배의 불평등 수준에 따라 한 사회의 평균소득은 소득분포의 중위점과 차이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소득분위를 홀수로 하여 분석할 경우 중앙에 위치한 분위의 결과값을 평균소득집단의 값으로 오해할 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소득분위의 개수를 4개로 하여 분석하였다. 소득 4분위의 학술적 유용성은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Acemoglu & Pischke, 2001; Finkelstein et al., 2010; Philbin et al., 2001; Usher, 2004)
 - 4) 토빗모형은 중도절단점의 방향에 따라 좌측 중도절단과 우측 중도절단을 각각 적용하거나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자료에서는 종속변수의 값이 0인 좌측 중도절단 사례가 충분히 관찰되었다. 그러나 우측 중도절단 사례, 즉 종속변수인 사회참여의 값이 6인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를 좌측 중도절단 자료로 정의하고 분석하였다.

2. 변수 간 인과관계 검증

전체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모형에서 대부분의 변수가 사회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중 성별,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건강 상태, 가구주 여부, 소득, 삶의 만족, 주관적 계층의식 등은 종속변수에 대해 정적 영향관계가 확인되었는데 이것은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남성일수록, 고연령일수록, 고학력일수록, 기혼일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가구주일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이라고 생각할수록 높은 수준의 사회참여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노동 여부는 부적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중고령층이 현직을 유지할수록 추가적인 시간사용이 필요한 사회참여활동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참여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변수가 유의한 영향을 보인 전체 인구집단 분석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변수 간 영향관계를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소득분위에 따라 구분된 모형에서는 전체집단의 분석결과와 상이한 변수 간 관계를 보고하고 있어 이해에 주의가 요구된다.

먼저 전체변수 중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종속변수에 대해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수는 교육수준과 건강상태로 확인되었다. 특히 교육수준은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변수로 제시되었던 바, 본 연구가 선행연구를 지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득분위별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먼저 가장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는 1분위 집단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결과 추가적으로 일부 변수가 종속변수에 대한 인과관계 유의성을 상실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가구소득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에서 유의하였음에도 모든 하위 소득분위집단에서 그 유의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소득과 사회참여 간의 영향관계를 긍정한 선행연구의 논의가 다시 해석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하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노동여부와 계층의식도 영향력의 유의성을 상실하였는데 이같은 결과는 적어도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인구집단에서는 노동 참여여부와 개인의 주관적인 계층의식이 사회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만 두 변수는 모두 일부 상위 소득분위에서 그 유의성을 회복하기도 하였다.

1분위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특이한 결과로 성별과 배우자 유무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은 해당 변수가 1분위를 제외한 상위소득 분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보다 배우자가 있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사회참여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나 이같은 결과는 소득이 가장 낮은 분위에서만 차별적으로 관찰되는 결과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2분위 소득집단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참여에 유의한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건강 상태, 노동여부, 거주지역 규모, 주관적 계층의식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역규모가 갖는 영향력은 전체집단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그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분위와 2분위 소득집단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흥미로운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물리적 접근성이 상대

적으로 우수한 도시지역이 농어촌지역보다 사회참여에 있어 용이하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인구집단에서는 변수의 영향력이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계수의 방향이 하위소득분위와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결과는 상위소득집단의 경우 자가용 등 접근성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열악한 접근성이 갖는 사회참여에 대한 억제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은 결과로 이해된다.

이와 함께 주관적 계층의식이 갖는 영향력은 전체집단 분석결과에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분위별 분석결과에서는 유일하게 2분위에서만 그 유의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 1〉 사회참여에 대한 전체 및 소득분위별 토빗 분석결과

	전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coef	margin	coef	margin	coef	margin	coef	margin	coef	margin
성별 (여성)	0.0507*** (0.0157)	0.0473	0.0657*** (0.0227)	0.0563	0.0323 (0.0350)	0.0302	0.0340 (0.0351)	0.0325	0.0280 (0.0546)	0.0270
연령	0.0175*** (0.00467)	0.0163	0.0209** (0.00956)	0.0179	0.0176* (0.00906)	0.0164	0.0150* (0.00827)	0.0143	0.0137 (0.0116)	0.0132
교육수준	0.0354*** (0.00498)	0.0330	0.0294*** (0.00875)	0.0253	0.0413*** (0.00992)	0.0386	0.0342*** (0.00941)	0.0327	0.0475*** (0.0137)	0.0457
배우자 유무 (없음)	0.219*** (0.0624)	0.2011	0.182** (0.0915)	0.1534	0.167 (0.128)	0.1546	0.202 (0.142)	0.1909	0.272 (0.260)	0.2580
건강상태	0.155*** (0.0219)	0.1443	0.196*** (0.0421)	0.1682	0.128*** (0.0414)	0.1203	0.129*** (0.0407)	0.1237	0.139** (0.0550)	0.1335
노동여부 (아니오)	-0.0827** (0.0340)	-0.0773	0.0537 (0.0635)	0.0460	-0.186*** (0.0664)	-0.1749	-0.139** (0.0626)	-0.1336	-0.124 (0.0850)	-0.1196
가구주 여부 (아니오)	0.230*** (0.0638)	0.2142	0.203** (0.0952)	0.1739	0.179 (0.141)	0.1675	0.271* (0.141)	0.2584	0.0837 (0.216)	0.0807
거주지역 규모 (동부)	-0.0428 (0.0384)	-0.0400	-0.133** (0.0656)	-0.1150	-0.212*** (0.0766)	-0.2005	0.114 (0.0712)	0.1086	0.127 (0.111)	0.1214
가구소득	0.141*** (0.0248)	0.1314	0.0590 (0.0507)	0.0506	0.0388 (0.231)	0.0363	0.0613 (0.205)	0.0585	-0.0438 (0.118)	-0.0422
삶의 만족	0.0514*** (0.0119)	0.0480	0.0908*** (0.0209)	0.0779	-0.00257 (0.0230)	-0.0024	0.0685*** (0.0223)	0.0655	-0.00863 (0.0325)	-0.0083
주관적 계층의식	0.0458*** (0.0174)	0.0427	0.0299 (0.0332)	0.0257	0.0821** (0.0347)	0.0768	0.0495 (0.0316)	0.0473	0.0135 (0.0441)	0.0130
Constant	-1.487*** (0.411)		-1.305* (0.752)		0.038 (2.000)		-0.853 (1.836)		0.441 (1.434)	
N	2,791		736		664		822		569	
sigma	0.766*** (0.0113)		0.762*** (0.0243)		0.740*** (0.0223)		0.744*** (0.0196)		0.793*** (0.0246)	
Log Likelihood	-3202.4129		-813.5450		-747.8402		-930.0360		-679.5371	
LR test (χ^2)	450.41***		137.02***		69.49***		78.45***		29.22*	

*** p<0.01, ** p<0.05, * p<0.1

※ 음영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함을 의미

※ 변수명의 괄호 안은 기준변수를 의미

3분위 소득집단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갖는 변수는 연령, 교육수준, 건강상태, 노동여부, 삶의 만족 등으로 나타났다. 이중 연령이 갖는 영향력은 4분위를 제외한 소득 하위분위에서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득의 증가에 따라 계수 또한 순차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하위 소득분위 집단에서 연령 증가에 따른 퇴직이 상대적으로 더 빈번할 것이며 이에 따라 증가된 시간적 여유가 사회참여와 연결되었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소득 최상위집단인 4분위에 대한 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변수는 교육수준과 건강상태로 나타났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변수는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4분위에서 다른 분위에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소득분위에 따른 분석결과를 전반적으로 조망하면 대부분의 독립변수가 미치는 영향력은 전체 집단과 소득 하위집단에서 상대적으로 유의하나 소득의 증가에 따라 변수별 통계적 유의성이 줄어들거나 상실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결과는 사회참여의 설명변수가 소득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보임을 의미한다. 즉 소득분위에 따라 구분된 집단이 사회참여를 선택함에 있어 서로 상이한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고령층에 대해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일련의 정책은 개인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개별적인 접근전략을 가질 필요가 있음이 본 연구결과를 통해 확인된 결과라 할 수 있다.

3. 한계효과 검증

토빗모형은 비선형 회귀모형이기 때문에 분석결과에서 보고되는 회귀계수가 설명변수의 한계효과를 의미하지 않는다. 설명변수 x 가 종속변수 y 에 미치는 한계효과는 확률에 미치는 한계효과와 절단평균(truncated mean)에 미치는 한계효과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민인식·최필선, 2012). 이에 따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결과표에서 변수별 회귀계수와 함께 한계효과를 계산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한계효과 크기가 가장 큰 변수는 가구주 여부이다. 즉 가구주가 가구원에 비해 최소 17.4%에서 최대 25.8% 이상 높은 사회참여 수준을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⁵⁾.

건강상태는 앞서 언급한대로 모든 소득분위에서 동일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한계효과 크기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집단에서 모든 조건이 동일할 때 건강상태의 1단위 개선은 약 16.8%의 사회참여 증가를 유발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건강상태가 5점척도임을 고려할 때 최고점과 최저점 간의 변량이 소득분위에 따라 약 19.2%까지 차이를 보일 수 있어 다른 소득분위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교육수준 또한 소득분위와 무관하게 유의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 앞서 언급된 바 있는데 교육수준이 갖는 한계효과 크기는 소득분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장 소득이

5) 그러나 가구주 여부 변수는 소득분위에 따른 통계적 유의성이 안정적이지 못하다.

적은 1분위에서 교육수준의 한계효과가 2.53%로 가장 낮게 보고되고 있는데 이같은 결과는 교육이 유발하는 사회참여에 대한 당위적 욕구에도 불구하고 낮은 소득수준이 이를 억제한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의 사회참여가 갖는 요인구조에서 특히 소득이 갖는 차별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집단을 4개의 소득분위로 구분하고 독립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각 분석결과에 나타나는 인과관계의 경향성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소득분위를 적용하지 않은 전체집단 모형에서는 대부분의 영향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여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소득분위에 따라 독립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분위에 따라 상당수의 영향변수가 유의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교육수준, 건강상태, 연령 등의 변수에서 어느 정도 일관적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이중 교육수준과 건강상태는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모든 집단에서 안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연령은 가장 높은 소득분위에서는 영향력이 상실되었으나 그 외의 분위에서 설명력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소득분위별 분석을 통해 드러난 가장 흥미로운 결과는 상위 소득분위일수록 기존 연구에서 제시되어 온 요인들의 설명력 상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소득 하위집단에서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나 소득 상위집단에서는 변수 간 관계에서 선행연구와 일치하지 않은 경향이 순차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소득분위에 따라 변수별 인과관계가 선별적으로 발생함을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요인들의 영향력이 저소득의 중고령층집단에 적용될 수 있으나 소득 상위집단의 경우에는 보다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중고령층에 대한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일련의 정책들이 중고령층 개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제공될 경우 그 효과성이 크지 않을 것임을 짐작케 하는 근거로 이해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고령층이 소득 면에서의 안정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범화된 역할로서의 사회참여를 수행해야 할 경우 모순적 역할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경혜·윤성은(2007)은 중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그들의 노후 소득에 대한 보장 없이 사회 내에서의 모범적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희생적 참여만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매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노후 생활에 충분한 소득구조를 확보하지 않은 중고령층에게 참여를 요구하는 역할규범은 두 가지의 비정상적 존재, 즉 어른 또는 선배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채 자신의 생계만을 목적으로 생활하는 이기적인 중고령층, 또는 사회의 모범으로서 역할하기 위해 자신의 생계를 기꺼이 포기하는 현실피리적 중고령층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중고령층에 대한 사회참여에의 요구는 적절한 소득 확보수단의 제공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중고령층이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경제적 보상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중고령층에 적합한 일자리가 그 질적 수준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치상의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더라도 중고령층 개인은 빈곤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거나 노년기 소득위축에 대해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 빈곤집단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시장의 충분치 않은 보상은 중고령층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노동시장 참여보다는 자녀 등에 의한 사적이전소득에의 의존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유발하여 총량으로서의 사회적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성균, 2008).

동일한 관점에서 중고령층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정책 또한 중고령층의 소득수준에 민감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사회참여 욕구는 개인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중고령층 전체의 세대특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하위소득계층의 경우 경제적 여건에 따라 사회참여 선택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지원정책에서 보충적 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중고령층의 소득에 따른 사회참여에 대한 제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한 의미있는 사례로서 서울시의 보람일자리사업이 면밀히 검토될만 하다.

서울시(2017)에서 2014년에 시행한 사회공헌형 일자리사업을 모태로 2015년부터 확대시행되어 오고 있는 보람일자리사업은 은퇴 이후 자신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중고령층에게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중고령층은 해당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에 대한 기여를 실현함과 동시에 일정 수준의 인건비 확보를 통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중고령층의 전문적 역량을 기반으로 기획되므로 사업에 참여하는 중고령층이 자신의 전문기술과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은퇴 이후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의 의미가 크다.

다만 해당 사업은 인건비 수준 등 현실적 한계 이외에도 주요한 개선의 필요가 있어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먼저 프로그램의 내용이 다양하지 못한 한계가 분명하다. 특히 특별한 경력, 기술이 없거나 특정한 방향의 활동을 요구하는 중고령층의 경우 사업 참여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어 현실적으로 참여 가능한 집단이 규정되는 한계가 발생한다. 사업의 방향을 경력과 전문성이 수반될 필요가 있는 사업과 전문지식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가능한 사업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급 활동의 확대가 무급 자원봉사를 대체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인일자리사업 등의 경험은 유급의 사회적 일자리 확대가 무급으로 수행되어 오던 자원봉사를 위축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에 따라 중고령층의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유급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있어 합리적인 수준의 소득기준을 제시하여 경제적 필요가 크지 않은 상위 소득집단이 유급 프로그램으로 편입됨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중고령층의 사회참여가 갖는 사회적 유용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관련한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중앙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고 있는 중고령층 사회참여 지원 정책들이 중고령층 개인의 소득 특성에 민감성을 갖고 있는지는 후속연구를 통해 독립적으로 평가

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 집단의 내부 이질성 논의를 기반으로 사회참여의 영향구조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중고령층 집단의 내부 이질성은 소득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통해 확인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같은 다양한 변수들의 차별적 영향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철희·황지민·이경혜. 2015. "베이비붐 세대 자원봉사 행동에의 영향요인 탐색연구: 이전세대 및 이 후세대와의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3(-). 41-71.
- 곽인숙·홍성희. 2013. "베이비부머의 노후생활설계 인식과 준비도: 전· 후기집단 비교".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7(2). 147-172.
- 곽지숙·허명희. 2003. "CRM 관점에서의 근로자 가구 소득에 대한 통계적 모형화". 「통계연구」. 8(1). 121-136.
- 김대건. 2015. "중고령층 고용률이 청년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저임금 일자리 비율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OECD 20 개국의 고용자료 분석". 「노인복지연구」. 70(-). 293-317.
- 김대건. 2018. "중고령층의 사회참여 연구 : 정치사회적 구조의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중혜·강운선. 2013. "중장년층의 노후준비교육 참여 실태와 요구". 「사회과교육」. 52(4). 49-60
- 김주영·우석진. 2010. 「노동시장 재진입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 김진욱. 2006. "한국 노인의 생산적 활동에 관한 실증연구-1999년과 200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25(-). 133-158.
- 민인식·최필선. 2012. 「고급패널데이터분석」. 서울: 지필미디어.
- 박경숙. 2003. "5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시장 이탈 과정; 은퇴의 유형화에 대한 함의". 「노동정책연구」. 3(1). 103-140.
- 박능후·최민정. 2014. "중고령층자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분석". 「사회과학연구」. 25(2). 325-354.
- 박미현. 2012. "중고령층자 자영업의 생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0세 전후 창업 비교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박미희·변금선. 2013. "생애과정 전환기의 생활시간 배분에 관한 연구 : 중·고령자의 생활시간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65(3). 29-52.
- 박선권. 2013. "생산적 노화'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3(-). 172-200.
- 박순미. 2011. "노인의 건강상태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사회참여와 경제활동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53(-). 291-318.
- 박영란·홍백의·심우정·부가청. 2011. 「베이비부머 은퇴 후 생활지원을 위한 신복지모형 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 변루나·김영숙·현택수. 2011. "베이비붐 세대 은퇴 후 사회참여 지원정책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1(4). 315-344.
- 서미경. 2010. "중고령층여성의 취업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지원. 2012. "베이비부머 가계의 경제구조 및 경제적 만족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41-66.
- 신유미·이성. 2011. 「베이비붐 세대의 제2인생설계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손정현·이영민. 2011. "중고령층 여성인력의 취업 결정요인 분석". 「인적자원관리연구」. 18(4). 69-88.
- 신현구. 2008. "우리나라 중고령층자의 노동시장 참여와 성과".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윤형호·황진수·엄석. 2007. "서울시 고령채취업자의 직종선택의 결정요인". 「한국노년학」. 27(4). 721-737.
- 이명. 2015. "사회관계망이 노인의 사회참여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대학원.
- 이성균. 2008. "중장년층의 취업과" 괜찮은 일자리". 「한국사회정책」. 15(2). 181-216.
- 이성균. 2011. "베이비붐 세대의 교육성취와 직업경험의 다양성". 「노동리뷰」. 71(-). 38-49.
- 이소정. 2009.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분석". 「한국인구학」. 32(1). 71-91.
- 이소정·정경희·이윤경·유삼현. 2007.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참여 유형 분석 및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현기. 2012. "노년기 생활환경과 중 고령자의 자원봉사활동: 현금기부 자원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4). 305-329.
- 이현기. 2013. "한국 베이비붐 세대의 자원봉사참여 및 참여의사의 영향요인". 「한국지역사회복지학」. 47(-). 227-256.
- 정순둘·이루리. 2014. "중장년층, 노년층의 노화인식과 세대간 결속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9(3). 25-42.
- 정일영. 2013. "사회참여가 노인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9). 164-177.
- 정일영. 2015. "노후준비와 중고령층자 자살생각의 인과모형에 관한 연구- 사회참여, 사회적지지, 스트레스,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주경희. 2011. "사회참여노인의 활동수준과 삶의 질-성별과 연령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2). 5-39.
- 지은정. 2012. "OECD 15개국 청년고용과 중고령자 고용의 대체관계". 「한국사회복지학」. 64(4). 233-259.
- 한경혜·윤성은. 2007. "대중매체에서의 신노년 담론 분석; 신문매체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27(2). 299-322.
- 한국고용정보원. 2015.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http://survey.keis.or.kr/klosa/klosa01.jsp>
- 한국노동연구원. 2008.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 제2차 기본조사 사용자안내서」. 한국노동연구원

- 한태영. 2014. "중장년 근로자의 가교일자리 전직 현상과 성공 요인".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38(2). 223-265.
- 허준수. 2014. "노인들의 사회참여활동 유형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64(-). 235-263.
- 홍현미라. 2009. "사회서비스 종사 중고령층자의 일만족(work satisfaction) 영향요인 탐색: 노동사회학적 관점 적용". 「사회보장연구」. 25(3). 83-107.
- 황수경. 2012. 「베이비붐 세대 이행기의 노동시장 변화. 서울연구원: 정책연구시리즈 2012-15.

Non-Korean Reference

- Adler, R. P., and Goggin, J. 2005. "What do we mean by "civic engagement"? Journal of transformative education, 3(3), 236-253.
- Brunton-Smith, I. 2011. Modeling existing survey data: Full technical report of PIDOP Work Package 5.
- Ehrlich, T. 2000. Civic responsibility and higher education. Greenwood Publishing Group.
- Kaskie, B., Imhof, S., Cavanaugh, J., and Culp, K. 2008. "Civic engagement as a retirement role for aging Americans". The Gerontologist, 48(3), 368-377.
- Laslett, P. 1991. A fresh map of life: The emergence of the third age. Harvard University Press.
- McBride, A. M. 2003. Asset-ownership among low-income and low-wealth individuals: Opportunity, stakeholding, and civic engagement. Washington University.
- McBride, A. M., Sherraden, M. S., and Pritzker, S. 2004. "Civic Engagement Among Low-Income and Low-Wealth Families : In Their Words. Center for Social Development Global Service Institute, Working Paper No. 04-14. Washington University.
- Oliver, J. E. 1999. "The effects of metropolitan economic segregation on local civic particip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3, 186-212.
- Rowe, J. W., and Kahn, R. L. 1997. Successful aging. The gerontologist, 37(4), 433-440.
- Seligson, A. L. 1999. "Civic Association and Democratic Participation in Central America A Test of the Putnam Thesi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2(3), 342-362.
- Verba, S., & Nie, N. H. 1987.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Kang Chul-He, Hwang Ji-Min, Lee Kyoung-Hye. 2015. "An Exploration on the Baby Bombers' Voluntering Behavior: Comparison of Younger & Older Generation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43(-): 41-71
- Kwak In-Suk, Hong Sung-Hee. 2013. "Baby Boomers' Perceptions and Preparations for Later Life Planning : the Comparison with the Former and the Latter Baby Boomer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7(2): 147-172.
- Kwak Ji-Sook and Huh Myung-Hoe. 2003. "Statistical Modelling of Employee Household Income for CRM Applications." *Journal of Korean official statistics*. 8(1): 121-136.
- Kim Dae-Gun. 2015. "A study on substitutive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Older and young labors: A Focus on the interaction of a rate of Low-wage work-Employment data analysis of OECD 20 countrie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70(-): 293-317.
- Kim Dae-Gun. 2018. "A study on the civic engagement of the middle & old aged people : focused on the influence of political and social structure." Doctor's Thesis, Seoul: The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Kim Jong-hye and Kang Woon-sun. 2013. "Participation and Need of Preparative Education Program for Successful Aging among Middle-Aged Adults." *Social Studies Education*. 52(4): 49~60
- Kim Ju-Young and Woo Seok-Jin. 2010. "A Study on Labor Market Re-entry". Seoul: Korea Labor Institute.
- Kim Jin-Wook. 2006. "An Empirical Study on the Productive Activities of the Aged in Korea: Focusing upon Analysing 1999 and 2004 Time Use Survey Data." *Social Welfare Policy*. 25(8): 133-158
- Min In-Sik and Choi Pil-sun. 2012. "Advanced panel data analysis." Seoul: Jiphil Media.
- Park Keong-Suk. 2003. "Labor Exit Process of Old Workers Aged 55 and over: Implication for Typology of Retirement." *Quarterly Journal of Labor Policy*. 3(1): 103-140.
- Park Neung-Hoo and Choi Min-Jeong. 2014. "A Study of Multi-dimensionality and Dynamics of Social Exclusion of the Middle Aged Householders." *Journal of Social Science*. 25(2). 325-354.
- Park Mee-Hyun. 2012. Factors affecting survival probability of self-employment at older

- ages: comparison of self-employment start-ups before and after age 50. Doctor's Thesis, Seoul: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Park Mi-hee and Byun Geum-sun. 2013. A Study on Time Allocation in Transition to Old Age: Focusing on the Patterns of Time Allocation among People aged 45 or more.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5(3): 29-52
- Park Sun-Kwon. 2013. A critical consideration of the concept of 'productive aging'. *Democratic Society and policy Studies*. 23(-). 172-200.
- Park Soon-Mi. 2011. "Effects of Health Status on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Focusing on the mediating and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activities and economic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53(-). 305-332.
- Park Young-Ran, Hong Baeg-Eui, Sim Woo-Jeong, Boo Ka-Chung. 2011. "A Study on new welfare model for life support after retirement of babyboomers." Seoul: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Byon Luna, Kim Young-sook, Hyun Taik-Soo. 2011. "A Comparative Study of Policies for the Social Participation of Baby-boomer Retirees in Korea and Japan."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31(4): 315-344.
- Seo Mi-Kyung. 2010.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mployment Experience of Pre-Elderly Women in Korea." Doctor's Thesis, Seoul: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Seo Ji-won. 2012. "A Study of the Economic Structure of Baby Boomer Households and the Determinants of Economic Satisfaction in Korea."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6(1): 41-66.
- Son Yu-Mi and Lee Sung. 2011. "Building a second life design for baby boomers." Seou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 Sohn Jung-Hyun and Lee Young-Min. 2011.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Employment Decision for Middle and Old Aged Women." *Journal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18(4): 69-88.
- Shin Hyun-Goo. 2008.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Outcomes of Older People in Korea." Doctor's Thesis, Seoul: The Graduate School of Hanyang University.
- Yun Hyung-Ho. 2011. "Trend of Income Gap by Region in Seoul." Seoul: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Lee Myung. 2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Social Networks on Aged People's Social Participation." Doctor's Thesis, Seoul: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 Lee Sung-Kyun. 2008. "Employment and Decent Jobs for the Korean Mid-Old Age." *Korea Social Policy Review*. 15(2): 181-216.

- Lee Sung-Kyun. 2011. "Educational achievement and variety of career experiences in the baby boomers." *Labor Review*. 71(-): 38-49.
- Lee So-Chung. 2009. "Social Participation of Korean Older Persons." *Korea Journal of Population Studies*. 32(1): 71-91.
- Lee So-Chung, Chung Kyung-Hee, Lee Yun-Kyung, Yu Sam-Hyun. 2007. "Analysis of Social Participation Types of the Korean Elderly and Policy implications."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Lee Hyun-kee. 2012. "Life Environments and Volunteering among Older Adults: Focused on Money Volunteering." *Social Welfare Policy*. 39(4): 305-329.
- Lee Hyun-kee. 2013. "Factors Affecting Volunteering Participation among Korean Baby Boomers and their Volunteer Intentions: Centered on Comparisons with Older Adult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7(-): 227-256.
- Chung Soon-dool and Lee Lu-Ri. 2014. "The Effect of Recognition of Aging and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on Life Satisfaction of the Middle-aged and the Older Adults."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s Association*. 19(3): 25-42.
- Jeong Il-Young. 2013. "Effect of Social Participation Influencing Elderly's Suicidal Ideation."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3(9): 164-177.
- Jeong Il-Young. 2015. "A Study on the Causal Mode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reparation for Old Age and Suicide Ideation of Middle Old Aged: Focused 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Participation, Social Support, Stress, Disorder." Doctor's Thesis, Seoul: The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 Ju Kyong-Hee. 2011. "Activity Level of Social Participation and Quality of Life among the Elderly in Korea -Focusing on gender and age differenc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2(2): 5-39.
- Ji Eun-Jeong. 2012. "The Substitution Relations between the Employment for the Youth and the Old in 15 OECD Countrie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64(4): 233-259.
- Han Gyung-Hae and Yoon Sung-Eun. 2007 "Critical Review of Discourse on Aging in Korean Newspaper." *Journal of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27(2): 299-322.
- 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5.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http://survey.keis.or.kr/klosa/klosa01.jsp>
- Korea Labor Institute. 2008. 2nd Basic survey user guide of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KLoSA). Seoul: Korea Labor Institute.
- Han Tae-young. 2014 "Bridge Job Transition and Its Success Factors of Middle-aged Workers: Two Exploratory Qualitative Studies." *Journal of Organization and Management*. 38(2):

223-265.

Hur Jun-soo. 2014. "Determinants of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mong the Elderly Persons."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64(-): 235-263.

Hong HyunMeeRa. 2009. "Factors of Influencing on Work Satisfaction of Middle-Older Aged Employee in Social Service: Applying Sociology of Labor Perspective." *Korean Social Security Studies*. 25(3): 83-107.

Hwang Su-Kyung. 2012. "Impact of baby boomers' transition on labor markets in Korea." Seoul: Korea Development Institute.